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 해 인



며칠 전 나는 우리 수녀원에 손님으로 오신 어느 신부님과 함께 광안리 바닷가에 나갔다. 마침 썰물 때라 더욱 넓어진 모래 사장에 사람들이 저마다 새해의 복을 비는 글들을 적어 놓은 눈에 빠졌다.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래 위의 낙서는 아주 깊게 이어져 우리를 미소하게 했다. 하트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사랑해, 영원히!’ 행복하자. 우리!하는 연인들의 표현도 아름답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어놓은 인사말도 새삼 정겹게 여겨졌다.

낯선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복을 빌 어주며 덕담을 나누는 또 한 번의 새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행복한 사랑의 길이 되면 좋겠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길 위에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어가며 조금씩 사랑을 넓혀가는 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려면 매 순간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는 마음으로 깨어 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잘 아는 혁이란 청년이 이웃에게 실천한 애국의 배려가 따뜻한 감동을 준다. 며칠 전 그가 동대구에서 부산으로 오는 오후 3시30분 무궁화호 열차를 탔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길이 되어

바로 옆자리에 어린 두 딸과 동행하는 일본인 남자가 자꾸만 무어라고 하는데, 청년은 일본어를 모르고 영어로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던 터에 그는 일어를 전공한 친구에게 일부러 이동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게 했단다. 그랬더니 그 일본인은 5시30분에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시모노세끼로 가는 배를 타야하는데 열차가 연착을 하는 바람에 배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역에 내려 택시를 타도 늦을 것만 같아 청년은 부산 지리를 잘 아는 친구에게 긴급문자를 보내 마중을 나오게 했고, 일본인 여행을 5시10분까지 터미널에 데려다 주어 무사히 일본으로 배를 탈

수 있었다. 혹시라도 나쁜 사람으로 오인받을까 싶어 학생증까지 보여 안심을 시키면서 목적지까지 가니 그 일본인은 미안한지 자꾸만 돈을 주려고 하기에 괜찮다고 했고 두 딸과 함께 배에 오르며 미리를 조아려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 하더라고 했다.

내가 고맙다고, 잘했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답을 해왔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구 그래도 수녀님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사실 별거 아 니긴 한데, 부산역에 기꺼이 마중 나와 주

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라고 생각하는 결론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에게 무상으로 빛을 주는 축복이 되고 사랑의 길이 되는 행동일 것이다.

욕심과 이기심은 아주 조금만 줄여가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과 시간 속에 숨어 있는 행복을 잘 꺼내고 펼쳐서 길이 되게 하자. 이 길로 자주 이웃을 초대하자.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 마주치게 될 크고 작은 일들이 잘만 이용하면 모두 다 나에게 필요한 길이 될 것임을 믿는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을 가져오는 ‘사랑의 작은 길’이 되리라 다짐하면서 시 한 편 읽어 본다!

‘오늘 하루/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없어서는 아니 될/하나의 길이 된다
내게 잠시/환한 불 밝혀주는/사랑의 말들도/다른 이를 통해/내 안에 들어 와
고드름으로 얼어붙는 슬픔도/일을 하다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뭉게 뭉개 피어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오늘도 몇 번이고/고개 끄덕이며/빛을 그리워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 - 이해인의 시 ‘길 위에서’

<수녀·시인>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최 은 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빼온 각 쇠고기 수입금지를 요구하며 15~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의 주요 분과·작업반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국미국 양국은 협상에서 빼온 각 쇠고기 수입금지 문제를 포함해 6차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결렬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FTA 협상을 진전시켜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미국과 사뭇 다르다.

모르겠다.

하지만 SPS(위생 및 검역조치)상의 이유로 쇠고기를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는 한·미 FTA 협상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게 학계·농업계·시민단체의 요구다.

한편 일본도 11일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라 21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는 미·일간 협상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렬될 것이다.

이 같은 협상은 전남의 경우도 유사하다. 전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 조선 등 대기업제품

기 고



고 영 만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21%의 수출증가율을 달성, 전국 수출증가율에 비해 6%포인트나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광주의 수출증가율은 2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광주가 그간 소비도시에서 생산 및 수출도시로 급속히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수출증가율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몇몇 대기업 수출이 40% 이상 증가하여 지역수출을 견인하면서 가능했으며, 이를 제외한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증가율은 10%에도 못미치는 둔화된 실적을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남의 경우도 유사하다. 전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 조선 등 대기업제품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민들의 기업을 대하는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들은 기업의 활발한 생산 및 수출활동으로 인해 광주전남 경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우량기업을 더 유치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다면 좋겠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대규모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미당에 태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이기 때문이다.

입주의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부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 원칙 대응하라

지난 11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나 12일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삶만 큼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종교계·시민단체 원로 10명이 국민적 합의 없이 타결을 강행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협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정부의 협상전략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경강경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적 협의에서 당장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취소한 뒤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거나 그래도 어려울 경우 4월 OIE(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지도

<농협장성농산물연합사업단장>

일반 우편물 소홀히 취급하는 자세 개선돼야

지난해 우체국에서 새해 달력을 가게부, 디아리 등을 담아 호주로 보냈다.

1만3천500원의 우편료를 들여 발송했는데 1개월이 넘도록 배달되지 않아 발송 우체국에 문의했더니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왜 돈 좀 더 들여 등기 우편물로 보내지 일반 우편 서비스를 이용했나?”고 했다.

비싼 우편료를 들여 발송한 우편물 관리하고 일반 우편물을 도중에 다른 곳으로 배

달되거나 분실돼도 그만이란 말인가.

일반 우편물도 정당한 우편 요금을 내고 발송한 것이다.

당연히 어떻게 배달되는지, 제대로 도착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 과정에서 혹시 잘못 발송됐다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것이 우체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등기로 보낸 것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우편물을 소홀히 취급하는 자세는 개선돼야 한다.

<박재영·순천시 저전동

지역민 여러분, 기업 사랑 합시다

수출이 전체수출의 80%를 차지할 뿐 중소기업은 미미하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는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시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울산은 인구 110만으로 광주에 비해 적으나 자동차, 중공업, 조선 등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다.

이로 인해 총생산액이 광주의 2.5배, 수출규모는 6배 이상에 달해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기업인 M.S.K 기업의 경우에도 이들의 수출증가율이 높지만 아니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점하고 있어 대부분 이들 기업에 의해 지역의 생산과 수출이 주도되고 있다고 봄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주택가 후면 주차 배기ガ스 고통... 꼭 전면 주차를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지만 아직까지 내 집마련을 못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서민이다. 반지하층에 사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지하층은 헛美貌도 잘 만들고 통풍도 잘 안돼 쾌적하지 못하다. 살기에 아주 열악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세들어 사는 집은 도로가 붙어 있고 도로에는 늘 승용차들이 주차하는데, 반지하층이다보니 통풍용 창문이 지상의 땅 높이보다 약간 높은 곳에 설치돼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멀리 높은 곳에 설치돼 있다. 그래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 배기ガ스가 고스란히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차가 언제 나타나며

연과 먼지를 내뿜을지 몰라 창문을 여는 건 엄두도 못낸다.

지상에 “제발 전면 주차해주세요”라고 쟁여 놓았지만 운전자들은 자기만 편하고 고급차를 찾기 위해 광역자체도 차를 찾고 있다. 당시 해당 외고공관들이 주어진 예산초과로 충당할 계획이다.

▶ 신재민·목포시 청평동

시 설

광주 택지개발 정보 유출 받본색원 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각종 개발계획의 검토 추진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여지는 너무나 많다. 개발 정보 자체가 엄청난 차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출 유혹은 그만큼 크다. 각종 개발사업마다 비슷한 소문이 무성하다. 따라서 개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관련자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택지개발 같은 공공사업에 있어 정보의 사전 유출은 엄연히 한다. 공무상 기밀을 사사로운 개인의 치부를 위해 유출하는 행위는 행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보 유출을 반드시 색출하는 동시에 이번 택지개발 사업은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도 철저한 수사로 도면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직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크다.

여수엑스포 기본계획 확정 의미 크다

정부가 1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열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가 결정되면 1조6천억원을 들여 박람회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부지 조성과 재원조달, 교통 및 숙박대책 등 준비상황과 박람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자비 1조6천억원 중 4천748억원은 민자로, 4천314억원은 입장료 등 수의사업으로, 3천334억원은 행사 후 시설물 매각수입으로, 4천298억원은 정부 저당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박람회가 끝나면 관련 시설을 마련이나 해양과학관, 해양체험센터로 활용해 미래형 관광·레저항구로 개발 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15일 박람회 운영조직과 지원시설, 지원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유치지원위원회, 전남도, 여수시 등은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선 등 정치상황에 휩쓸려서는 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또 무산될 수는 없는 일이다.

無等鼓

한국인들의 반응은 ‘날 것을 먹는 야만인들’이라는 비웃음이 주류였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고급 호텔에서 요리 강습을 열고 영향력을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유흥이, 다도 등과 함께 일본문화의 하나로 생산 조밥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해외 일식당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20년 전 곳이 넘는 전 세계 일식당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조리법과 맛, 위생 상태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넘는 점포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미국에서 성업 중인 대다수 일식당의 실제 주인들이 아시아계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식당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강화해 ‘사무라이 브랜드’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드라마 블록 편성해 한류를 만끽했던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일식당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강화해 ‘사무라이 브랜드’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드라마 블록 편성해 한류를 만끽했던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인 대목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	